

강강술래는 노래와 춤이 하나로 어우러진 집단 놀이이며, 중요 무형 문화재 제 8호이며,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됨. 우리나라의 남서부 지역에서 널리 행해지는 것으로 풍작과 풍요를 기원하는 풍속의 하나로 음력 8월 한가위에 연행됨. 노래, 무용, 음악이 삼위일체의 형태로 이루어진 종합예술.

강강술래는 여러 가지 놀이로 구성되어있는데 그 놀이들로는 기와밟기, 덕석 물이, 쥐잡기 놀이, 청어 엮기, 남생이 놀이, 꼬리 따기, 대문 놀이, 고사리 꺾기 등이 있다.